

두 언어 안에서의 성장: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유아 교육을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할 것들



THE
MCKNIGHT
FOUNDATION



Brief from the National Research Summit on the Early Care and Education of Dual Language Learners

In the fall of 2014, the Heising-Simons and McKnight Foundations provided support for a National Research Summit on the Early Care and Education of Dual Language Learners in Washington, DC. The goal of the two day summit was to engage and extend the established knowledge base accrued by the Center for Early Care and Educational Research Dual Language Learners while simultaneously informing the future potential policy efforts specific to the early care and education (ECE) of dual language learners (DLLs). The Summit focused on new directions in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related to DLLs in ECE settings and included discussion of five commissioned papers: Research Based Models and Best Practices for DLLs across PreK-3; Perspectives on Assessment of DLLs, PreK-3;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Critical Role of Leadership in Programs Designed for DLLs, PreK-3; Policy Advances & Levers Related to DLLs in PreK-3. This brief provides a short summary and synthesis of the policy implications addressed in these papers and the discussion generated at The Summit.

“다시는 영어하는 애들이랑 같이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서의 유치원 첫날, 일민이를 데리러 학교에 온 엄마를 눈물을 짓게 만든 말입니다. 미국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민이에게 언어란 한국어가 전부인 아이였습니다. 재잘거리기 좋아하고 행복했던 4살짜리였던 일민이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로 변하였습니다. 훗날 일민이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친구가 없었고, 일민이 자신도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도 본인과 같은 언어를 말하지 않는 환경에 있거나, 본인의 모국어를 금지한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거나, 혹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환경을 접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의 자존감은 물론이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아 이중 언어 학습자들을 위한 조기 교육에 대해 논의 할 때, 단일언어로만 이루어진 교육체제에서 발생하는 제 2 언어 학습 경험의 사회, 정서적 측면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 이중 언어 학습자들은 학교로부터 언어와 이와 관련된 가치, 신념, 그리고 행동양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서로 다른 두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중 언어 학습자들의 부모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정보에 근거한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며,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사회, 정서적 분위기를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선택할 때 부모가 알아야 특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양질의 조기교육은 아이들의 개성과 문화적 경험을 고려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아이가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했을 때, 즉 그들에게 친숙하거나 연관있는 활동일 때,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유아 이중 언어 학습자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두 언어의 발달을 도우며 그들의 문화적 경험을 반영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두 가지 언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 두 언어를 사용하며 생각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집과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 등 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언어, 즉 학교에서 쓰는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모국어 능력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제2 언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곧 교과목 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학업성적이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유아기의 이중 언어 발달

일부 아이들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유아 프로그램에서 처음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혹은 태어난 지 얼마 안돼서 두 언어를 배우는데, 이 두 가지 경우 우리는 아이들의 두 언어의 발달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중 언어가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우리의 지식을 더해주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중 언어 학습자는 단일 언어화자들과 다르게 발달합니다. 두 언어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 언어 학습자의 뇌 기능은 단일 언어화자의 뇌 기능과는 다릅니다.
- 어린아이들은 둘 이상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두 언어를 배움으로 인해 혼돈되지 않으며, 또한 이는 아이들의 영어 발달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 이중 언어는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으로 아이에게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 모국어에 대한 뛰어난 언어 능력은 이중 언어 학습자의 영어 발달을 촉진합니다.
- 특정 언어의 조기 노출 및 해당 언어사용은 그 언어를 발달시키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이중 언어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기를 멈추거나 사용 빈도수를 줄이면, 모국어 능력을 잃게 되고, 이중 언어자가 될 확률 역시 크게 줄게 됩니다.
-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이중 언어 학습자들은 몰입식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이중 언어 학습자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영어 점수를 받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조기 교육에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아원 및 다른 교육 프로그램은 이중 언어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중 언어 학습자의 발달을 도와야 합니다.
- 그러므로, 부모는 이중 언어 교사가 두 언어로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원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야 합니다.



- 지역 사회에서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모국어를 돕는 영어로 된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특히 이중 언어 학습자 아이들이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정에서 아이들의 모국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시로 읽기, 노래하기, 말하기).
- 이중 언어 상용할 때 장점을 얻기 위해선 말하기 뿐만 아니라 두 언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아이들은 두 언어를 사용하며 배우고 있으므로, 발달 및 학업 평가는 두 언어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언어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혹은 언어발달에 지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이중 언어자가 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아이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유능한 이중 언어자 되기엔 충분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읽고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중 언어 상용은 아이와 가족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그들이 가정의 문화에 뿌리를 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뛰어난 학업성취와 함께 새로운 세계 시장에서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유아 유치원에서 자주 쓰이는 도서목록

책제목	출판사	책제목	출판사
구름파 유치원	한림출판사	나도 아프고 싶어	시공주니어
내 귀는 짹짹	웅진씽크빅	개구장이 해리	사파리
까만 크레파스	웅진닷컴	충치 도깨비 달달이와 콤콤	현암사
내가 꿈꾸는 침대	미세기	여름	미래아이
우리 손이 어디가니	보림	천둥케이크	시공주니어
날개를 기다리며	베들복	갯벌이 좋아요	보림
바람이 사랑	국민서관	비가 오는 날에	보림
꽃이랑 놀자	웅진 주니어	숨 쉬는 향아리	보림
할머니의 선물	사계절	달의 비밀	반딧불이
14마리의 아침밥	한림출판사	재주 많은 다섯 친구	보림

우리 아빠가 최고야	킨더랜드픽처북스	아무도 모를거야 내가 누군지	보림
이상한 이웃	달리	우리들의 사과나무	크레용하우스
토끼가 커졌어	한솔수북	바람이 불었어	시공주니어
크릭터	시공사	바빠요 바빠	보리
손바닥 동물원	예림당	엘레베이터 여행	폴빛
내 친구 장수풍뎅이	제삼기획	밀리의 특별한 모자	베들북
난 토마토 절대 안먹어	국민서관	나도 아프고 싶어	시공주니어
구름공항	벨리마주	개구장이 해리	사파리
아빠와 함께 피자놀이를	한림	충치 도깨비 달달이와 콧콧	현암사
낙엽이 춤을 춰요	예림당	여름	미래아이

2013년 서울시가 선정한 올해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도서목록

책제목	저자	출판사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책읽는곰
블랙독	레비 핀폴드	북스토리아이
안녕, 친구야	강풀	웅진주니어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사
달 샤베트	백희나	스토리보울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채인선	재미마주
개구쟁이 그르드	이억배	사계절
이 작은 책을 펼쳐봐	제시클라우스마이어	비룡소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고릴라 할머니	윤진헌	웅진주니어
기분을 말해봐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꿈꾸는 우산	장윤경	푸른숲주니어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이사벨 미노스 마르틴스	고래이야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버나뎃 로제티 슈스타	보물창고
새가 된 청소부	아서 요링크스	뜨인돌어린이
신기한 붓	권사우, 흥신타오(원작)	사계절
아빠와 나	세르주 블로크	국민서관
우리 할아버지	마르타 알테스	사파리
책이 뭐야	레인 스미스	문학동네
할아버지의 이야기 나무	레인 스미스	문학동네
형보다 커지고 싶어	스티븐 켈로그	비룡소
안돼!	마르타 알테스	북극곰

영,유아 이중언어 아이들을 위한 도서 목록 (영어, 한국어 버전 있음)

책제목	저자	연령
Lima's Red Hot Chili	David Mills	3-8
Fox Fables	Dawn Casey	4-9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Annie Kubler	0-3
Little Red Hen and the Grains of Wheat	L. R. Hen	3-8
My Daddy is a Giant	Carl Norac	1-5
Animals Nita Goes To Hospital	Henriette Barkow	4-8
Not Again, Red Riding Hood!	Kate Clynes	3-8

한국어 동화 웹사이트

	사이트 주소	동화
주니어 네이버	http://jr.naver.com/	http://study.jr.naver.com/donghwa/
깨비키즈	http://www.kebikids.com/	http://www.kebikids.com/
재미나라	http://www.jaeminara.com/	http://www.jaeminara.co.kr/ani/?

감사의 글

. 카스트로박사는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어와 한국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준 노스 텍사스 대학의 박사 과정에 있는 이은영 선생님의 소중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This document may be reproduced solely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Full credit must be given to the original source.



National Research Summit on the Early Care and Education of Dual Language Learners

In the Spring of 2014, the Heising-Simons and McKnight Foundations each awarded \$30,000 towards a National Research Summit on the Early Care and Education of Dual Language Learners. The goal of the two day summit was to engage and extend the established knowledge base accrued by the Center for Early Care and Educational Research Dual Language Learners (CECER-DLL), while simultaneously informing the future potential efforts by the Heising-Simons and McKnight Foundations specific to the early care and education of dual language learners.